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형 민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Depression in Low-Incom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Hyungmin Lee

Department of Social and Child Welfare, Woosong University, Daejeon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depression in low-incom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The study consisted of 376 mothers in low-income families from participants enrolled in the population-based study of 2011 PSKC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factors including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social support, and family life event were assessed with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description analysis, partial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10.6% of mothers were in severe depressive group in this study. Also the result revealed that marital conflic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aternal depress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specially had difficulty with depression due to family related factors. Implications included the need to support mothers and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focusing on family relationships in order to improve and sustain mental health.

Key Words: m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father involvement, social support, family life event

서 론

교신저자: 이형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아동학부
전화번호: 042-630-9836, 팩스번호: 042-630-9269
E-mail: miso2child@naver.com
원고접수: 2015년 10월 15일, 원고심사: 2015년 10월 30일
원고채택: 2015년 12월 28일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 2008)는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아져 인류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2030년에는 우울증이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Jo, 2012)에 의하면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생활 사건이 발생할수록, 교육 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은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 우울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이후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나타냈으며,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Embry & Dawson, 2002).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인 위험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우울이 갖는 취약성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 우울은 종종 '빈곤의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Patel, 2006). 우울의 발병 시점에 대해 중단적인 연구 설계로 알아본 결과(Dearing et al., 2004), 빈곤에 노출 될수록 우울이 조기에 시작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ric 등(2003)은 가정의 수입과 우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1,35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 후 3년간의 중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수입이 높았던 기간에는 우울의 정도가 낮았으며, 월수입이 낮았던 기간에는 우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살펴보았을 때, 중년기 이후 사회경제적 수준과 우울간의 관련성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Park & Lee, 2002), 중년기 이전에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우울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 직업 유무, 어머니 연령, 자녀수와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으로부터 얻는 실제적 만족과 이익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Lazear et al., 2008).

개인의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 부끄러움 등의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는 주관성이 개입된다. 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보다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Brown & Mankowski, 1993).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좌절의 경험을 다른 가정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70여 편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결과(Sowislo & Orth, 2013)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내 특성은 양육 스트레스이다. 양육 스트레스란,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태도이다(Abidin, 1992). 본 연구의 대상이 양육자의 개입과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이므로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 중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만성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Lee & Lim, 2006)으로 하거나, 산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Ahn & Oh, 2006)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만 3세를 전후로 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련성이 저소득층 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으므로(Ohem & Chun, 2006), 이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각자의 배우자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울증의 발병 시점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Fin-

cham et al., 1997). 부부관계가 배우자의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시점과 영향력에 관해 904명을 대상으로 21년간의 중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부관계가 부정적일 경우 배우자의 주요우울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졌다(Whisman & Bruce,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Roe & Kwon, 1997).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지원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들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우울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Huh & Han, 2009)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경우가 어머니의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우울간의 관련성이 나타났다(Paulson et al., 2011).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Kim, 2007)도 존재하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 요인으로 그 영향력을 알아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외 지원 요인은 사회적 지원이 있다. 사회적 지원이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인의 지각이며,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주어지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다. 저소득층은 일반 가정보다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웃이나 친구 간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Oh, 1990). 생활 사건과 우울간의 관련성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전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Brown & Harris, 1978). 생활 사건은 가족발달 단계에 따라 예정된 변화인 규범적 사건과 개인과 가족이 예측하지 못한 비규범적 생활사건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가정에 비하여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다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각 지역의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모집단에서 추출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는 각 영향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소수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인구학적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적인 특성인 개인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선정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 가족 내 특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임을 고려하여 양육과 관련된 지원으로 가정 내 지원 요인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로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 가정 외 지원 요인은 사회적 지원에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인 가족 생활사건을 변인에 포함하여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이들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자아존중감,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아버지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가족 생활사건)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한다.

2)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 요인들(자아존중감,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아버지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가족 생활사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자아존중감,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아버지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가족 생활사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한다.

3.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Lee et al., 2011)의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은 2008년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 15개 광역시·도별 지역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2단계 층화 추출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2,078명이 초기표본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차년도 패널은 총 1,754명이었으며 그 중 저소득층 가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월평균 근로소득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25% 미만(월평균 가구 소득 209만원)의 어머니 37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유아의 성별과 월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수가 선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모두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구방문 면접원은 CAPI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의 수정된 인적사항이나 직업관련 문항 등을 이전년도 자료와 연동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우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등 (2002)의 간편형 우울척도(K6)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mild/moderate)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구분된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Rosenberg (1989)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이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은 역점수화 하였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4)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 (1990)이 개발하고 Kim과 Kang (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만을 발췌하였으며, 사전 조사 시 적절치 않은 문항 2개를 제외하고 총 10문항이 최종 사용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5) 부부갈등

부부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arkman 등 (199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의 같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6)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ong (1995)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7)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와 Ok (2001)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8) 가족 생활사건

가족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 McCubbin 등 (1982)이 개발한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사용하였다. 가족 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으로 나뉘며 규범적 사건은 총 17개 문항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비규범적 사건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함(1점)'에 표시를 하도록 하여 총점을 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년간 가족 생활사건의 빈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α 는 .82, .87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조사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지에 가정방문 면접조사와 어머니 대상의 우편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응답을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 시에는 연구 참여의 의사가 있는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구두와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어머니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 응답에 대한 비밀 보장과 연구 결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문지를 배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를 패널의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가구방문 면접원이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였을 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분석을 위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구하는 기술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관련 변인은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통제가 가능한 편상관계 분석(partial correlations)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머니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가정 내·외 지원, 가족생활사건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각 요인들을 다중회귀식에서 위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성 적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자녀는 남아 53.5%, 여아 46.5%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녀의 월령은 생후 37개월 이상 39개월 미만인 47.3%로 나타났으며 평균 38개월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 56.9%, 둘째 35.6%, 셋째 이

상이 7.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10.9%,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47.9%, 35세 이상이 41.2%로 평균 연령은 34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5.7%, 전문대 졸업 29.3%, 대학교 졸업 25.0%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로는 미취업이 85.1%로 나타나 취업모보다 미취업 모가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6.0%,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4.0%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4명이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Table 1).

2.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자아존중감은 총점 5점에 평균 3.00점,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2.83점, 부부갈등의 경우 평균 2.18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양육 참여는 평균 3.56점, 사회적 지원은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사건과 비규

범적 사건에서 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최대 11개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비규범적 사건의 경우 최대 5개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전체 우울 점수는 6점에서 26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12.30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상인 경우 평균 9.67점으로 나타났으며, 67.3%가 이에 속하였고, 경도/중증도의 경우 평균 15.66점으로 22.1%, 중도인 경우 평균 21.95점으로 10.6%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중증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약 1/3 정도가 정상 범위가 아닌 수준의 우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

어머니 연령, 최종학력, 취업여부, 가구원 수, 자녀 성별, 자녀 월령, 자녀 출생순위 변인들을 통제하고 관련 변인들 간의 편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우선, 어머니의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
Children	Gender	Male	201	53.5
		Female	175	46.5
	Age (month)	35~36	141	37.5
		37~38	178	47.3
		39~41	57	15.2
	Birth order	1st	214	56.9
		2nd	134	35.6
3rd or higher		28	7.5	
Mother	Age (year)	<30	41	10.9
		30~34	180	47.9
		≥35	155	41.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2	45.7
		College	110	29.3
		University or graduate	94	25.0
	Employment status	Employed	56	14.9
Unemployed		320	85.1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4	3.7	
	100~199	159	42.3	
	≥200	203	54.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3	98	26.1	
	4	204	54.3	
	5 or more	74	19.6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N=376)				
Variables	n(%)	M	SD	Range
Self-esteem		3.00	.32	1.00~5.00
Parenting stress		2.83	.65	1.00~5.00
Marital conflict		2.18	.82	1.00~5.00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376 (100.0)	3.56	.69	1.00~5.00
Social support		3.70	.69	1.00~5.00
Normative life event		4.05	2.27	0.00~11.00
Non-normative life event		0.71	.94	0.00~5.00
Depression				
Normal	253 (67.3)	9.67	2.56	6.00~13.00
Mild/moderate	83 (22.1)	15.66	1.44	14.00~18.00
Severe	40 (10.6)	21.95	2.02	19.00~26.00
Total	376 (100.0)	12.30	4.73	6.00~26.00

Table 3. Partial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N=376)								
Variables	1	2	3	4	5	6	7	8
1. Depression	1							
2. Self-esteem	-.260***	1						
3. Parenting stress	.430***	-.108	1					
4. Marital conflict	.512***	-.215***	.470***	1				
5.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101*	-.004	-.184**	-.262***	1			
6. Social support	-.324***	.036	-.320***	-.291***	.135*	1		
7. Normative life event	.201***	.142*	.132	.104	.032	.014	1	
8. Non-normative life event	.217***	.103	.101	.127	-.049	-.085	.206***	1

*p<.05, **p<.01, ***p<.001.

우울은 개인 특성 중 자아존중감($r=-.260, p<.001$)과 는 부적으로, 가족 내 특성 중 양육스트레스($r=.430, p<.001$), 부부갈등($r=.512, p<.001$)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곧 어머니가 자아존중감이 낮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받는 가정 내·외 의 지원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r=-.101, p<.05$)와 사회적 지원($r=-.324, p<.001$)은 부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는 곧 아버지가 양육에 덜 참여하고 어머니가 받 는 사회적 지원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을 뜻한다. 가족 생활사건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사건($r=.201, p<.001$)과 비규범적 사건($r=.217, p<.001$)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생활 사건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Table 3).

분석에 사용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04에 서 .512 사이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팽창인자(VIF)는 1.009에서 1.595로 기 준치인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공차한계 (Tolerance)도 .812에서 .900으로 기준치인 0.1이상 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어머니의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가정 내·외 지원, 가족 생활사건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통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가정 내·외 지원, 가족 생활사건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모형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선, 어머니의 연령, 최종학력, 취업여부, 가구원 수, 자녀 성별, 자녀 월령을 투입하여 배경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 어머니 개인 및 가족 내 특성(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을 투입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추가로 가정 내·외 지원(아버지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족 생활사건(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우선,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부부갈등($\beta=.37, p<.001$), 양육스트레스($\beta=.26, p<.001$), 자아존중감($\beta=-.15, p<.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배우자와 부부갈등 수준이 높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변인에 가정 내·외 지원 변인(아버지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추가된 변인 중 사회적 지원($\beta=-.18, p<.001$)만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가정 내·외 지원 변인이 추가된 경우 어머니의 최종학력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나, 어머니 개인 및 가족 내 특성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은 유지되었다. 3단계에서는 2단계 변인들에 가족 생활사건 변인이 추가되었으며, 그 중 규범적 사건($\beta=.11, p<.01$)과 비규범적 사건($\beta=.10, p<.05$)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규범적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 정도도 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종 모델에서는 부부갈등($\beta=.33, p<.001$)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beta=-.17, p<.001$), 양육 스트레스($\beta=.19, p<.001$), 자아존중감($\beta=-.14, p<.01$), 규범적 사건($\beta=.11, p<.01$), 비규범적 사건($\beta=.10, p<.05$)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어머니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가정 내·외 지원, 가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of Mothers' Depression according to Individual and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Support and Life Event

(N=376)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Maternal age	-.03	.05	-.03	-.63	.531	-.04	.05	-.04	-.85	.396	-.04	.05	-.03	-.81	.421
Maternal education level	-.49	.43	-.05	-1.16	.249	-.26	.43	-.03	-.61	.544	-.12	.42	-.01	-.29	.771
Maternal Employment status	.66	.59	.05	1.12	.263	.64	.58	.05	1.11	.266	.46	.57	.03	.80	.423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3	.31	.02	.44	.662	.07	.30	.01	.24	.813	.02	.30	.01	.07	.945
Child gender	-.49	.42	-.05	-1.16	.246	-.52	.41	-.05	-1.25	.211	-.34	.41	-.03	-.83	.405
Child age	-.09	.15	-.02	-.58	.560	-.05	.15	-.01	-.33	.738	-.07	.15	-.02	-.46	.646
Child birth order	-.11	.38	-.02	-.30	.764	-.08	.38	-.01	-.21	.836	.03	.37	.01	.09	.932
Self-esteem	-2.35	.67	-.15	-3.52	.000	-2.49	.66	-.16	-3.77	.000	-2.11	.66	-.14	-3.23	.001
Parenting stress	1.95	.37	.26	5.34	.000	1.63	.37	.22	4.41	.000	1.47	.37	.19	4.02	.000
Marital conflict	2.22	.29	.37	7.61	.000	1.98	.30	.33	6.55	.000	1.93	.30	.33	6.49	.000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07	.32	-.01	-.21	.833	-.08	.31	-.01	-.24	.809
Social support						-1.25	.33	-.18	-3.83	.000	-1.21	.32	-.17	-3.77	.000
Normative life event											.25	.09	.11	2.65	.008
Non-normative life event											.52	.23	.10	2.29	.022
Adjusted R ²			.345					.367					.390		
F(p)			20.427 (.000)					18.851 (.000)					17.853 (.000)		

족생활사건과 우울간의 관계와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 참여자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37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2011년도에 실시된 1,754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12)의 한국아동패널 결과에서는 어머니 우울은 11.89 ± 4.09 ,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 3.63 ± 0.59 ,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6 ± 0.68 , 부부갈등 평균은 2.10 ± 0.76 ,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평균 3.61 ± 0.81 , 사회적 지원은 3.80 ± 0.73 , 규범적 생활사건은 평균 3.55 ± 2.27 , 비규범적 생활사건은 0.62 ± 0.9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는 전체 모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 가족생활사건 빈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 변인과 관련된 각 변인 모두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취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변인만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의 경우 한 개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어머니 개인 및 가족 내 특성, 가정 내 · 외 지원, 가족생활사건과 우울간의 관계와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관 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 한 후 어머니의 개인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가족 내 특성으로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투입되었다. 우선, 가족 내 특성 중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많다는 것은 일상적인 다툼(daily hassle)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다툼은 생활사건과는 다르게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서 지속적이며 누적적이다. 이렇게 누적된 일상적 다툼은 곧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한다(Crnic & Acevedo,

1995). 부부간의 갈등은 단순히 배우자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최근의 Clavarino 등(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가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택하여 어머니 본인은 우울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우울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시사한다.

부부갈등 다음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양육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 대상인 만 3세 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되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획득한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주도성을 보이게 된다. Erikson (1959)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만 3세는 주도성 획득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유아는 자신의 주도성을 시험해 보려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Lee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아기 운동능력과 활동량이 증대되면서 자율성 형성과 관련된 유아의 요구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각 사건마다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만성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그 영향력이 높게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정의에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므로, 저소득층 어머니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Brown & Mankowski, 1993). 그러므로 저소득층 어머니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자신에 대한 개념 인식에 있어서 주관적인 평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내·외 지원 요인을 포함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우울의 발생률이 낮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ee & Ok, 2001; Yun, 2013). 우울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는 고립감이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이 혼자 육아를 도맡아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전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어머니 외에도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리 육아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였고, 그 자원을 즉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핵가족 제도에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육아에서의 도움은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에 속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 도구적 지원은 구체적인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질 때 또한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족 생활사건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 모두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 사건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im과 Kwak (2010)의 연구에서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빈곤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에 있어서 부부갈등이 결국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Ok과 Chun (2012)의 연구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층의 어머니의 경우 부부갈등의 높은 수준으로 이것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부갈등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규범적 사건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경우 가

족구성원이나 평소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인적 관계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아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을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중 저소득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체계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연구의 대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편향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의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의 예측 변인에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같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시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대처 방안과 기초적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하였다. 본 연구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력은 39% 였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는 가족관련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미시적으로는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과 주변 가족 및 지역 사

회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Pediatric Psychology Press, Charlottesville, VA. 1990
- Abidin R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2;21(4): 407-412
- Ahn OS, Oh WO. Relationship among postpartu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in mothers during puerperi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6;10(1): 58-68
- Brown GW, Harris T.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Free Press, New York. 1978
- Brown GW, Mankowski TA.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3; 64:421-430
- Clavarino A, Hayatbakhsh MR, Williams GM, Bor W, O'Callaghan M, et al. Depression following marital problems: different impacts on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21-year prospective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11;46: 833-841
- Crnic KA, Acevedo M. Everyday stress in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1st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5:277-297
- Dearing E, Taylor B, McCartney K. Implications of family income dynamics for women's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first 3 years after childbir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4;94(8): 1372-1377
- Embry L, Dawson G. Disruptions in parenting behavior related to maternal depression: Influences on children's behavioral and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In J. G. Borkowski & S. L. Ramey (Eds.),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 Influences on academic, intellectu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203-212).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ew Jersey. 2002
- Eric D, Beck A, Kathleen M. Implications of family income dynamics for women's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first 3 years after childbir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3;94(8):1372-1377
- Erikson E.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1959
- Fincham FD, Beach SR, Harold GT, Osborne L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1997;8:351-357
- Hong SR. Studies i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hirties husband's family role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1995
- Huh BY, Han KJ.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2009;12(2): 131-146
- Jo MJ.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Kessler RC, Andrew G, Cople LJ, Hiripi E, Mroczek DK, Normand SLT, et al.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2002;32(6):959-976
- Kim HJ. Postpartum depression of maternities with or without occu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Kim KH, Kang HK.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97;35(5):141-150
- Kim YS, Do NH, Ywang YH, Sing YH, Lee YJ, et al.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oul. 2012
- Kim YS, Kwak JY. The effects of life-ev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cohesion on depression of female heads in poverty : focused on women with children under 18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Seoul studies* 2010;11(1):161-179
- Lazear KJ, Pires SA, Isaacs MR, Chaulk P, Huang L. Depression among low-income women of color: Qualitative findings from cross-cultural focus groups. *Journal of Minority Health* 2008;10:127-133
- Lee JR, Choi EY, Do NH, Song SY, Wang YH, et al. The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oul. 2011
- Lee JR, Ok SW.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

- income female earn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1;39(5):49-63
- Lee JW. The childcaring stress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3; 7(2):207-216
- Lee SJ, Lim SY. The study of variable affecting depression of the mothers of the child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06;10(1):100-118
- Markman HJ, Stanley SM, Blumberg SL. *Fighting for your marriage*. Joseey-Bass, CA. 1994
- McCubbin H, Patterson J, Wilson L.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1982
- Oh SH. A Study on social network among the urban po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 Ohem MS, Chun DI. A study on caregiving burdens and social support about the low-income families of single parents. *Social Welfare Review* 2006;11: 75-108
- Ok K, Chun HY.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2;33(1):205-221
- Park GJ, Lee KH. A structural model for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1):69-84
- Patel V. Is Depression a Disease of Poverty? *Regional Health Forum WHO South-East Asia Reg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5:14-23
- Paulson JF, Dauber SE, Leiferman JA. Parental depression, relationship quality, and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infa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11;32(4):528-549
- Roe EY, Kwon JH. The role of self-esteem and marital relationship on women's depression I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7;16(2): 41-54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 ed.).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CT. 1989
- Sowislo JF, Orth U.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2013;139 (1):213-240
- Whisman MA, Bruce ML. Marital dissatisfaction and incidence of major depressive episod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9;108(4):674-678
-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Retrieved June 10, 2015, [cited 2008]; Available from: URL:http://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GBD_report_2004update_part4.pdf?ua=1
- Yun DH. The effect of infant development level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 Chai University. 2013